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한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 간 석 일 윤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285호
<순간>
1979년
7월1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5일간 하기방학 맞아

2학기 개강, 후기 학위 수여식 8월25일

성적확인21일,수강신청 23~24일, 등록 22~25일

○…… 지난 10일 금학기 기말고사가 종료함에 따라서 본대학은 11일부터 8월25일까지 약45일간하……○
○……기말학에 들어갔다. 2학기 개강은 78학년도 후기졸업식이 거행되는 8월25일 있게된다.

방학중본대학에서는 무역대학원과 공시통역대학원의 통합이루를 결정지을 예정이며 각종 특강이 진행되는 외에 각 서어학에서는 봉사활동및 각종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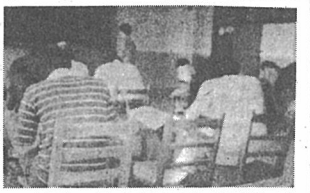
Time반의 Time특강, 서예반의 서예및 한문특강, 영작및 토플특강등 외에 조정반에서는 하계조정연수회와 갖는다. 또한 KUSA와 「갈부리」를 중심으로 한 연합봉사대가 7월15일부터 24일까지 농촌봉사활동을 벌인다.

△국연 학사일정을 보면 7월14일까지 각 학과 교수의 1학기 학생성적보고가 완료되며 개강은 8월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4학년이 24일 하게 되는데 학수표및 수강신청 카드는 수강신청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학본부 114호실에서 배부한다. 강의시간표와 수강신청요령은 8월20일부터 22일 사이에 교무과에서 배부하며 학생들을 지참해야 한다.

학사표는 8월15일을 전후해서 발송될 예정인데 1학기 성적에 의문이 있을 때는 학수표 B표에 의문사항을 표기하여 8월21일 교무과에서 확인 받을 수 있다.

2학기 등록은 8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계일은행 종로지점에서 접수하며추가등록은 없다고 한다.

한편 2부학부에서는 정규수업시간을 통해 18학점밖에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미 취득 6학점의 취득을 위해 방학중에도 정규수업을 진행한다.



◇지난10일 기말고사가 종료됨에 따라 캠퍼스는방학의 정적으로 들어갔다.

또한 8월25일 개강일에는 78학년도 후기졸업자에 대한 학위수여식이 오전11시 본대학교정에서 거행될예정이다.

차기 호국단 간부 예정자 확정

선발위서 인선, 임기 6개월로

79학년도 제2학기 학도호국단 최고학생 제학장및 부서간부 예정자 명단이 확정되었다. 제5대째에 해당하는 이번 호국단 부서간부진의 임기는 그동안 매학년 2학기부터 다음 학년 1학기까지 1년단위로 되어있던 것과는 달리 79년 9월 1일부터 80년 2월21일까지 6개월로 단축 조정되었다.

예년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금번 부서간부의 인선방식은 각 학과의 학과장이 학과대표를 학생회연합회를 참조하여 학과장 부장 2명, 차장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전계부서에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한결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학생들의 심사와 개별면담에서 당초 연대장을 희망했던 사람은 9명이었던것으로 밝혀졌는데 연대장을 비롯한 부서간부들은 B학점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활동에의 자질과 인품이 고려되어 학도호국단부서간부선발 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의해 확정되었다.

금번 부서간부선발은 작년의 경우처럼 1차로 선발된 인원에서 최종선발을 위한 수련회를 갖지않고 새로이 부서간부선발 소위원회를 구성 최종 인선을 벌금지었다.

금번 부서간부추천과 인선과정에 대해 한관계자는 예년에도 거론되어 온 것이지만 전체 학생의 의견보다 일부 학생들의 자문과 학자장의 제창이 많은 작용을 하는 만큼 호국단 간부진과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천방식에서 다소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간부진은 개강을 전후해서 임명되게 되는데 임명예정자 중에는 제4대 학도호국단부서간부로 차장을 맡고있던 4명을 포함한 5명 제대간부 4명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과별로 고루 배정되어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급 이상의 임명예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대장 : 김진수 (P·3) 부연대장 : 김진태 (N·3) 총무부장 : 조성민 (Ir·3) 문예부장 : 송도배 (KE·3) 훈련부장 : 박관근(S·3)체육부장 : 김광중 (C·3) 지도부장 : 임승택 (Tu·3) 새마을부장 : 유해림 (PA·3) 어학생부장 : 성미혜 (Sw·3)

17회 외대문학상 시상식

지난 4일 학장실서

금년도 제17회 외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7월4일 오전 10시30분 대학본부 학장실에서 거행되었다.

안병만 학생처장, 본보 석일균 주간, 본보 기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수상식에서 최한부 학장은 소설부문 당선자 고명훈군 (MI·3) 등 5명에게 각각 상장 부상을 수여했다.

이자리에서 최학장은 본지를 통해 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독자와 함께 호흡하며 상호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창조적인 문학을 위해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부상으로 소설부문 당선자는 상금 9만원, 시부문가작에 4만원, 번역부문가작 상금 5만원, 평론부문가작 2편에 상금 3만원씩이 각각 수여되었다.

본대학내 문학풍토의 진작을 위해 지난 1962년 이래 본시상에서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17회의 연륜을 쌓아온 외대문학상은 명실상부한 외대문인의 등용문으로 그동안 기성문단에 다수의 문인들을 배출해 왔었다.

이날 시상식의 수상자 및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설부문 당선 : 고명훈 (MI·3) 작품 「비행연습」△평론부문 가작 : 윤준 (E·3) 작품 「영상심문」 : 현준만 (E2) 작품 「김수영론」△시부문 가작 : 이재현 (E·3) 작품 「가을을 위한 베개의 현 (絃)」△번역부문 가작 : 김인석 (E·4) 작품 「나의 귀여운 아내여」

커피자동판매기 철거 결정

관리소홀, 이용부진으로 당초의도 빗나가

학내 도서관과 식당, 학생회관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가 관리측의 소홀과 학생이용의 부진으로 당초 설치의도에 어긋나 철거처분결정을 내렸다.

당초 학교당국에서는 학내에서의 영업행위를 허용할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판매기설치를 거절했는데 업주측은 이를 학교측단에 호소, 호국단 서마을부에서 이를 맡아 총무과와 협의하여 이자금을 새마을부 예산에 편입시키거나 연말연시 불우이웃등기에 상 조건으로 이의 설치를 함의해 총무과에서 관리해 왔다.

하기 서예 특강

사군자·한글서예

서예반에서는 오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학생회관 313호실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서예특강을 개최한다.

강의내용은 배우 일요일과 금요일에는 기초한문, 한글서예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료는 사군자와 서예중 어느 하나를 수강할경우 각 5천원이고 모두 수강하면 8천원이다.

제2지망제 시행 불가피

1980학년도 본대학 신입생모집요강이 지난달 9일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의결, 확정 되었다.

교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신입생의 모집학과, 인원을 비롯하여서 입시요강을 전년도와 동일하나 변화를 일킬하여 영어는 150점 이면 것을 130점으로 낮추었고 국어(I) 과 수학(I)은 종전 대표 각각 100점을 반영으로 하여 본고사만 총330점 만점이다.

또한 예비고사 성적은 종전과 같이 340점 총점을 반영하여 입시 총점은 작년의 690점에서 670점으로 낮춰졌으며 예시성적은 입시총점의 51%를 차지하게 되었다.

법정·상경학부와 교육사범학부는 각각 계열별 모집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한 2부 학부도 작년과 변동없이 3개학부 각각 과별 모집요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신입체 근로자및 실업계 중졸지원자자의 선발은 학과정원의 50%이내에서 작년과 달리 일반 수험생과 같이 필답시험을 치루도록 결정되었으며 입시 각 과목별 출제방침은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을 8:2로 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도 입시에서는 79학년도 입시에서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전체 정원의 30%이내에서 실시되었던 제2지망제가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이 보류되었다.

한편 종래와 같이 교포및 외국인으로서 본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받을수 있다.

「필답고사 전형 입자는 내년 2월4일이어 수험생에 대한 원서는 내년 1월21일부터 교무하여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2부학부의 산업체근로자 및 실업계 중졸지원자의 원서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예시입선계열 합격자로서 경영학과 지원자의 원서는 내년 2월 1일과 2일 양일간 접수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12일에 있을 예정이며, 2월13일 1차합격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면접이 실시된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14일 있게 된다.

내년 신입생 전형요강확정

영어 130점, 총점 6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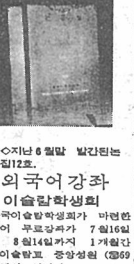
논문 제12집 간행

어문학, 사회과학분야 23편 실려

본대학 출판부에서는 지난 6월30일 개교25주년 기념 논집 제12집을 간행하였다.

개교2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초에 착수하여 금년 5월초에 인쇄에 들어가 결실을 보게된 이 논문집은 4×6배판에 연속세 커버장정으로 어문학분야 12편 사회과학분야 11편의 고수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금년 논문집은 장정과 참가 체제를 비롯한 편집스타일의 혁신으로 이전에 간행된 논문집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의 완벽한 논문집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월말 발간된는 문집12호.

외국어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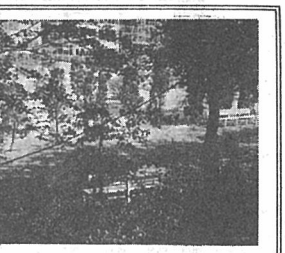
이슬람학생회

한국이슬람학생회가 마련한 외국어 무료강좌가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1개월간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 (☎6908) 에서 열린다.

본대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이학생회는 매년 방학때마다 퍼어기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이란어등 4개외국어에 걸쳐 강좌를 펼쳤다.

알 림

본 외대학보는 이번제285호로서 금학기 신문발행을 끝맺게 된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다음 신문은 2학기 개강과 함께 9월 1일자로 발행함을 알려드리며 독자제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여운촛점

방학이라는 도다른 할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조리 아즈학사스의 신비를 엿볼때 젊이다.

대학의 역정도 시작과 끝의 연속적인 조합에 다름 아니다. 만 학기의 마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앎을 이제 한 어름 속 빈 포켓에 남겨졌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14일 있게 된다.

대천 하계 수련장 개장

7월20~8월14일, 총 110명 수용

본대학 복지시설의 하나인 종남 보양관 소재 대천 하계생수련장이 오는 20일부터 8월14일까지 약 1개월간 개장된다.

1인당 3박4일의 기간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이수련장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1인가구 학생처에 학과, 졸업, 서어를 혹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는데 개장기간중만 수련장에는 본대생으로 입소증 소지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교 수 동 정

○…이무선조교수(아랍어과)는 아랍어연구를 위해서 7월11일 출국하여 1980년 7월29일까지 약 1년간 Tunis 공화국에 체류한다.

○…비밀탐프어과 손봉호부조수는 비밀탐프 정부초청으로 「발전개념에 대한 철학적연구」를 위해 오는 9월5일 출국, 내년 8월20일까지 약 1년간 비밀탐프에 체류할 예정이다.

○…영어과 양인석교수 (외국어연수원장) 와 일본어과 민성홍부조수는 7월9일 일본으로 떠나 오는 8월15일까지 풍시통역연구를 위해 일본에 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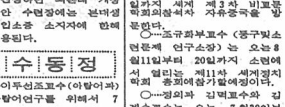
○…이탄어과 김정위조교수는 「한국·이탄의 협력 증진타진」 「이탄어 강의및 이탄인속에 대한 자료수집」등을 위해 오는 8월말 귀국예정으로 10일 이탄으로떠났다.

○…일본어과 박희태조교수는 7월9일 출국, 8월2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법일본어교수법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어과 김춘미련임강사는 오는 8월6일부터 12월까지 세계 제3차 비교문학회의참석차 자유중국을 방문한다.

○…도규희부조수 (동구및소련문제 연구소장) 는 오는 8월11일부터 20일까지 소련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정치학회 총회에참가할예정이다.

○…경희과 김덕호조수와 김계수조수는 오는 7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공산권 연구차 해외시찰에 오를 예정이다.



▲기말고사끝로, 하기방학에 —물조심, 불조심, 조심할것 특강요나…
▲입시요항열어 배럴를고, 제2지망제 보류 —다들 올린는데, 즐겁다는 소식 들으니 참이학 말아나 (?)

캠퍼스

▲봉사 (奉仕), 한낱을 위하여 일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당위적으로 그것이 진실한 의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는 봉사자 자신의 이해를 바탕 삼는 전심계 자세가 요구된다. 이기주의와 출세욕이 팽배한 오즈음 세태 (世態)는 이 보수없는 「봉사」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형편이다. 그럼 경황이 대학인의 의식에까지 흡입 (昌入) 되어가는 현상을 목도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타협이 허마다 이해관이 던 일단의 학생들이 서어 술·대학생교 농촌동지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 본대학에서도 몇가지 서어술이 주최을 이룬 연합봉사대가 농촌사랑을 펴날 예정이라한다. 이들의 봉넌적인 농촌봉사취지는 일차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속에서 현장학습과 자기완성을 기하는 한편 농민을 위한 구체적 봉사활동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떠벌린다.

▲도시 대학생은, 자의건 타의건간에, 선택된 소수층으로 입입이거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인텔킵 지식인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대학생의 봉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인 봉사 (Public Service) 라는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봉사의 주체인 대학인 자신이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에 입각하여 시대상황을 인지한 지식인의 역할과 책무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농촌봉사는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갖춘 대학인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바 농촌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형태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오늘날의 농촌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작가의 지식인적 역할 수행을 보아왔다. 많은 농촌주제소설은 토지제도등에 있어 잊어진 불합리상과 농민의생활상과 의식, 농협문제등을 농민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그 개선점과 핵심소재를 밝히고있다.

▲농가의 스레트지붕 위에 솟은 TV안테나와 산뜻하게 도색 (塗色) 된 농협창고는 농촌정책과 번모한 농촌상을 파시한다. 그럼에도 오늘의 농촌 현실은 이농현상과 농·공산품간의 「세어」(가격격차) 현상등이 드러나, 구조적으로 농민을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쉽게한 안목을 결한 정책의 시행착오, TV속의 허황된 도시생활의 과감효과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농촌봉사는 노력봉사, 교육봉사의 이름아래 월요간의 김매기와 어린이 들보기등만으로 진정한 역할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에 열거한 농촌의 근본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봉사에 일할때 자기 도취에 빠져오히려 농민에게는 도시인의 사치로 보일수도 있는 역기능을 낳을 위험도 있다. 열흘간의 노력 (努力) 봉사가 심질인에서 농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인의 농촌봉사는 농민과 함께, 고락을 나누며 그들의 문제를 찾아 농민 스스로가 그를 인식하고 극복케하는 능력과 의식을 일깨워주는 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때 보수없는 일식적 봉사는 장기적으로 보상될수 있을것이다. <곽해선기자>

198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항

1. 모집학과 인원 및 시험과목

학부	전공학과	정원
2부	정부아랍독중프영	45
	영어말본일	45
	학어어어어	45
	과과과과과과과	45
상경학부	경제학과	80
법정학부	법정학과	100
교육·사범학부	교육학과	50
외국어학부	불한독프영국일아스페러인이스어어어어

평론(評論) 제17회 외대문학상 가작

시인 김수영론

반시론의 반어 反語

I

몇해 전 한국을 방문한 작가 게오르규가 시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특히 역할을 하며, 시인이 피로와하는, 사회는 병든사회라 하면서 제시한 「잔수함 속의 포기」의 주화는 시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케 해 준다. 잔수함 속의 포기가 산소결핍에 제일 먼저 고통을 느끼고, 그 위험한 상황을 사방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시인도 자기 시대의 위험을 제일 먼저 느껴, 그시대에 경종을 울린다. 한시인이 어떤 식으로든 그사회를 나타내려 했던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볼수 있다. 특히 현실이<참상부상>의 위기로 시와 시인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유린할 때 시인이 그현실에 더욱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자주본다. 시인 김수영에게서도이 점을 볼수 있다.

문학의 본질이 예술성과 사회성을 중시에 지니는것이라면, 소위 참여 문학은 사회성을 보다 강조하게된다. 원래 그 전달 매체로서 사회적 도구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이 그렇듯 강상 그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에 바로 참여문학의 존재이유가 있다. 특히 60년대와 같이 혁명공모로 시꾼이 공인없이 변장되고, 그에 따른 가치기준의 혼란등으로 사회자체가 불안정함때는 더욱 문학의 참이가 요구된다.

그러나 시와 현실의 요구에 의해 등장한 참여문학은 그자체에 내재성(內在性) 이라는기타관념적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주창자가 그를 평한 글에서<그(김 수영—인용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그는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문제를 생각했을 동시대의 시인이었을 것이다. >①라고 했듯이, 참여 문학의 단점성을 넘어 서서 어느 시대에나 영원히 살 수 있게한 시인의 힘,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나는 시작의 출발부터 시기했다」는 것, 또 참여 시인이라 불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 결국이 문제들은 한때 많은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수 참여의 2원론이 한 시인에게서 어떻게 극복 되었는가. 또 나아가 그 극복주그가 의식한 「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필수 있다고 나는 본다. 따라서 시인인 만큼이나 산문가로서 이 다룬다 그의 시와 산문 등에 그의 시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반화한 시정신의 변모를 살펴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란 암의 모래 속에 하나의 세계를 보고/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시인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송이 꽃, 돌멩이 하나에서도 전 세계와 우주를 본다.

다시 말해 일상적 사물을 시인의 예리한 감각망으로 포착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서 있는 것이다.

—중략—

나는 겉고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밤새조차 하여서는 아니될 미인데 하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들고있다.

(B) 모든 사물을 외부에서 보지 말고, 내부로부터 쉽게, 모든 사태는 행동이 되고, 내가 되고, 기쁨이될 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씨—동기—로 부르는 것을 쉽게 깨닫는 것이다.

(B) 의 시상이 (A) 를 통해 발침해 준다는 것을 쉽게 깨닫는 것이다.

『(A) 도회 안에서 뭉쳐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입이여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여
모두 다 내던지고
집없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푸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평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평이가 과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는 나의 입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집없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푸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평이가 도는 것을 본다.

『나는 시작의 출발부터 시기했다』는 것은 시인의 정신이 본질 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성 (정직성) 을 갖기 위한방법이 바로<바로본다>라는 시각교정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바로 보는>행위가 이루어질때 김수영에게는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의 피력이 있다. <바로 본다>라는 내적 기반 위에서 나온 외적 행동이그것이다.

「나나라의 장난」에서의 시인의 진지성이 문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성 (정직성) 을 갖기 위한방법이 바로<바로본다>라는 시각교정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바로 보는>행위가 이루어질때 김수영에게는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의 피력이 있다. <바로 본다>라는 내적 기반 위에서 나온 외적 행동이그것이다.

「나나라의 장난」에서의 시가<행동을 위한 밑받침>이라 생각한 그에게는 이 두가지 측에서 필연적으로 산문의 특, 즉 내용의 특에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었다. <관조가 아니라 실천을, 측어가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아니라, 측어가는 자기 그 측을의 실천—를, image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image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에게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택하는 것이 우리앞을 갈아 놓는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이 산문의 <내용>의 편을 택한 그의 고뇌에서나온 말이라 하겠다. 그는그의 시론에서 형식과 내용은 반비례 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고 하였지만, 그는 내용에 치우치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지 못한 자신의 시를 불완전한 반역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자신은 참여시인이라 부르는 것을 싫갈지 않은 칭호>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반목의 고뇌를 그의 반시론의 반어에서 극복한다. 반시론의 반어—이것이 바로 그를 영원한 시인으로 남게한 힘의 원동력인것이다.

IV

모든 언어는 파오어. 나는 시 속의 모든 파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참정적인 파오다. 수정된 파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④

이 말은 참여를 반대하는 동시에 참여를 반대한 말이다. 참여의 언어인 시간의 언어는 파오지만 시속에서는 그 파오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긍정한다. 현실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율 배반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순을 방관하면서도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로 되어도 그것은 수정될 필, 참정적인 파오라고 자위를 한다. 결국적 완전한 그 자체로서 완성된 작품과 창조하는 정신 사이의 차이가 투명하다>고 한말은<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김수영의 말과 같은 의미, 즉 자기재관점을 나타내 준다. 이자기 재관점 과정에서 그는 형식과 내용의 2원론을극복한다. 그가<나는 구멍이라도 생긴듯이 그렇게 시간 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 말은<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김수영의 말과 같은 의미, 즉 자기재관점을 나타내 준다. 이자기 재관점 과정에서 그는 형식과 내용의 2원론을극복한다. 그가<나는 구멍이라도 생긴듯이>라고 한시 「미인 (1967) 」은 그의시의 본질에의 접근과 형식과 내용의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가 아닐 수 없다.

『미인을 보고 돌아다볼 하지만
미인은 자기 얼굴이 싫을거야
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미인과 앉은 방에선 부심고 피 따놓는 방문이나 창문이 밤새 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 아니였다.』

(「미인」—전문)

후에 밝혀에 설쉬한 그는 노력 (詩) 는 존재 그자체라는 것을, 또<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에서 참다운 노력가 나온다는 것을 배운다. 「미인」에서<부심고>라는 말은 육심의 배제를 말한다.

즉, 외미에서 무의미로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심이다. 시작 과정에서 이미<진짜 농부는 부심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기의 노동을 모르고있다.

내가 나의 시를 모르듯이 그는 노동을 모르고있을 것이다. >에라고 무의식적 과정을 중요시한 그는 이 시에서 무의미를보여준다. 무의미는 곧<시의 송화작용>이 인다. 다시말해 형식과 내용의 무의식적인 융합이고, <시의 미학>이며, 예술의 본질이다.

존재로서의 노력 (詩) 에 대한 힘있는 지향이다. 이때의 시가 그를 괴롭혀온 형식과 내용의 2원론을하나로 융합해 준다는 것이 그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에 들어난다.

시는 온몸으로, 온몸으로 밀고나가는보정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않는다. 그림자에 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업무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업무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업무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공화에 공헌한다. 바로 그 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이형식이 된다. 시란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일—김수영의말로는 곧<시방>—을 통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재체로 완전한 질서를 부여받게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변증법적 긴장감으로부터의 통일, 이런완성을 보여준시들이 그가세상을 뜨기바로 전에 나온 「눈」 「풀잎①②③」 「풀」 등으로 완성된것도 결국이 시론의 철저한 실천이라하겠다.

V

김수영만큼 시정신의 철저한 변모를 보여 준 시인은 드물 것이다. <시인은 영원한 배반자>라고 한 그의 말과 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언어」를 수단으로 시에서의 투철한 실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 실험은 바로<새로움의 모색>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처했어지지 않고 그 시대를 꿈뚜 바로 보며 한 그의 정직성과 진지성에서 나온다. 현실을 깊이 파고 거미한 뿌리, 김현, 민음사, 1974, P, 9

④ 「생활의 극복」 위의 책 P, 142~143

⑤ 「모더니티의 문제」 류리킨의 초상, 김수영, 민음사, 1976, P, 122

⑥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 124~125

⑦ 「새로움의 모색」, 위의 책, P103

⑧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얼개」, 위의 책, P108

⑨ 「일기초(II)」, 위의 책 P25

⑩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126

⑪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T. S. Eliot, Faber and Faber Limited, P18

⑫ 「반려론」, 위의 책 P71

⑬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128~129

⑭ 「일기초(II)」, 위의 책 P30

<시여 침을 뱉어라> 중에서

사설

호국단 집행부 경질

진일보한 운영을 구상하라

75년 호국단이 창단된지 5년여에 호국단 집행부가 다섯번째의 경질을 보게 되었다. 지난 6월 하순에 연합장과 부연하장 및 각부의 제단부를 선임함으로써 제 5대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것이다. 이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도의 중결과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종전의 임기 일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파도적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집행부는 79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되어 있다. 종전에는 전부 될이 4학년 1학기까지 직무를 맡게됨으로써, 졸업에 따르는 개인적인 입무와 중복되어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던것이다. 이번의 파도적인 조처는 그같은 불편을 배려하려는 의도에서 단행된 것이다.

호국단의 상단위치와 장형을 새삼스레이 부연할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가 거친 현실을 쉐곡하지 않는한, 시대와 사회가 요청한 새로운 학도상의 표징으로 요약될수 있다. 물자 그대로 호국학도의 사명을 부여하고 궁지를 고양함으로써, 안보지상이라는 국가적 전진대열에 흔쾌히 참여하는 결은이의 의식을 그것으로써 한층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단이며 호국단의 기치 (旗幟) 를 높이 든 집행부는 난관과 애로를 딛고 그같은 사명의 고취와 의식의 정착을 위하여 많이 진력하여 주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좀더 투철한 방향의 모색과 저력에 지극한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참신하고 활기찬 학림의 기풍을 세심하고 진작하는데에도 고귀한 정열을 쏟아 주었다. 학내의 모든 학생활동이 향도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각양한 활동부서와 제휴하고, 상조하여 년륜의 취지에 접근하는 기틀을 확실하여 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가 유의하고 또 담당할 직무에는 많은 전장 (前途) 을 바랑으로 하는 것이외에 새로운 경륜과 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절인하고자 한다. 투철보다도 긴요한 것은 4학년 외대생의 정신적 방황과 인간적 혼돈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5년여의 연륜을 쌓은 호국단이므로, 초창기의 운영상에 기틀을잡던 과제가 해결되어 거의 전폭적인 호응과 참여를 보게 된 시점에 다달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호국단에 기대하는 과제는 그 이노력보다 다양하고 고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상의성과 신념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불가피하게 학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게 되지만, 대학에서의 각종 행사는 학술적 문화적 공헌을 제일요로 하느니만큼 단지 전체 (前敍) 에 만족하는 반복성만으로는 참신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술적 문화적인 가치관단이란 창의성을 수반하는 부합한 안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므로, 탐구적이며 진실적인 증지를 경영하고 상향 (商量) 하는 신념으로 단단 사업을 추진할일이다. 그것은 곧 최대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견경정은 투발할 것이었다. 과거의 집행부가 많은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타수의 참여와 호응을 환기하며 고심하였다는 점을 재삼 음미하고, 이를 위하여 전체 학생과의 일체감을 더욱 고양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학교당국과의 유기적이며 상보적인 연계성의 고양이다. 실제 운영은 자율성에 위임되었지만, 학생신분을 전제로 하여 발거진 중책인만큼 교육이념의 범주에서 일탈하는 독주는 있을수 없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교육적 이념의 구현에 있느니만큼 학내에서의 일거일동과 각종 행사의 주제는 대학이 지향하는 사명과 연계나 일치하여야 하고, 모든 인간과 방법의 논리가 고도의 합리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함으로써만이 모든 성과가 전체학생의 공동의 복지로 회귀케 된다는 것을 상기할 것이다.

전임 제4대 집행부가 이룩한 공헌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며, 신임 집행부의 분발과 정진을 망부하는 바이다.

사상성과 진지성으로 「포오즈」위주의 시단에 반기
형식과 내용의 이원론은 사랑을 통해 질서 확립돼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생사람 같이 하기 쉽다. 그예로 60년대 4.19와 혁명의 격한 감정을 보로한 그많은 신인들이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것을 수 있는것다. 그러나 소위<신상수성과 그 일상물>이라 불리어진 많은 참여 시인들 중에서 왜 오직 김수영만은 아직도 그 위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정신속에 살아 있는 것일까? 그도 그일에 만일으리라 생각하지는데, 이시 전간 제트리에는<당김지않은 청호>라 일축해버린 파탄은 부정일까?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먹이는 아인이 아닐까?

문제점의 음박은이당다. 많은 참여 시인들 중에서 그만큼은 아직도 살아서 연려한 시인들은 남게한 힘과 시인이면서 시인답지 못한 것은 왜 그의 시인의 생활과 시인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사유력<바로 보는>행위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며, 많은 시인들이 사물에의 시각교정에서 시작의 출발점을 찾는다. 김수영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초기시 「공자의 생활난 (1946) 」서부터 「달나라의 장난 (1953) 」에까지 외그시에 서이시작교정의 심리의 <바로보기>라는 나아로 자주표 현되는 것은 볼 수 있다. <공부하여, 이제 나는 바로보마 「공자의 생활난」 (강조점—인용자) >

그러나 <바로 보는>것, 사물을 이면 상황에도 구속받음없이 있는 그대로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는 것을 김수영은 자각한다. 그 고통을 김 현씨가 지적한 대로 <상식에 대한 그의 초기시 「공자의 생활난 (1946) 」에 한다> ⑨ 이단 말로써 설명한수 있다. 어떠하지 인습적으로주어진 사물의 속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조명으로 새의미를 부여하고 새 가치를 지니게 하는 일은, 다시 말해 사물을 제 2의한생에 하는 것은 조물주의 일과 다름없이 힘들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 이 고통은<나는 이 책을 빌린 보고 있다. 「가끼이랑 수 없는 세계」>등에 나타나고, 바로 쉽수 없는데서 오는 사물과의 거리감을<거디에 나와서 집을보고/집에 나와서 거리를그리던 이러식을 「구라의 와수넘」>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고정의 실험을 통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어떠수 없는 괴리감을 「나나라의 장난」에서 극복한다.

『(A) 도회 안에서뭉쳐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입이여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여
모두 다 내던지고
집없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푸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평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평이가 과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는 나의 입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집없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푸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평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평이가 과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는 나의 입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집없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푸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평이가 도는 것을 본다.

「나나라의 장난」에서의 시가<행동을 위한 밑받침>이라 생각한 그에게는 이 두가지 측에서 필연적으로 산문의 특, 즉 내용의 특에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었다. <관조가 아니라 실천을, 측어가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아니라, 측어가는 자기 그 측을의 실천—를, image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image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에게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택하는 것이 우리앞을 갈아 놓는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이 산문의 <내용>의편을 택한 그의 고뇌에서나온 말이라 하겠다. 그는그의 시론에서 형식과 내용은 반비례 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고 하였지만, 그는 내용에 치우치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지 못한 자신의 시를 불완전한 반역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자신은 참여시인이라 부르는 것을 싫갈지 않은 칭호>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반목의 고뇌를 그의 반시론의 반어에서 극복한다. 반시론의 반어—이것이 바로 그를 영원한 시인으로 남게한 힘의 원동력인것이다.

IV

모든 언어는 파오어. 나는 시 속의 모든 파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참정적인 파오다. 수정된 파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④

이 말은 참여를 반대하는 동시에 참여를 반대한 말이다. 참여의 언어인 시간의 언어는 파오지만 시속에서는 그 파오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긍정한다. 현실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율 배반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순을 방관하면서도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로 되어도 그것은 수정될 필, 참정적인 파오라고 자위를 한다. 결국적 완전한 그 자체로서 완성된 작품과 창조하는 정신 사이의 차이가 투명하다>고 한말은<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김수영의 말과 같은 의미, 즉 자기재관점을 나타내 준다. 이자기 재관점 과정에서 그는 형식과 내용의 2원론을극복한다. 그가<나는 구멍이라도 생긴듯이>라고 한시 「미인 (1967) 」은 그의시의 본질에의 접근과 형식과 내용의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가 아닐 수 없다.

『미인을 보고 돌아다볼 하지만
미인은 자기 얼굴이 싫을거야
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미인과 앉은 방에선 부심고 피 따놓는 방문이나 창문이 밤새 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 아니였다.』

(「미인」—전문)

후에 밝혀에 설쉬한 그는 노력 (詩) 는 존재 그자체라는 것을, 또<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에서 참다운 노력가 나온다는 것을 배운다. 「미인」에서<부심고>라는 말은 육심의 배제를 말한다.

즉, 외미에서 무의미로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심이다. 시작 과정에서 이미<진짜 농부는 부심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기의 노동을 모르고있다.

내가 나의 시를 모르듯이 그는 노동을 모르고있을 것이다. >에라고 무의식적 과정을 중요시한 그는 이 시에서 무의미를보여준다. 무의미는 곧<시의 송화작용>이 인다. 다시말해 형식과 내용의 무의식적인 융합이고, <시의 미학>이며, 예술의 본질이다.

존재로서의 노력 (詩) 에 대한 힘있는 지향이다. 이때의 시가 그를 괴롭혀온 형식과 내용의 2원론을하나로 융합해 준다는 것이 그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에 들어난다.

시는 온몸으로, 온몸으로 밀고나가는보정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않는다. 그림자에 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업무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업무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업무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공화에 공헌한다. 바로 그 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이형식이 된다. 시란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일—김수영의말로는 곧<시방>—을 통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재체로 완전한 질서를 부여받게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변증법적 긴장감으로부터의 통일, 이런완성을 보여준시들이 그가세상을 뜨기바로 전에 나온 「눈」 「풀잎①②③」 「풀」 등으로 완성된것도 결국이 시론의 철저한 실천이라하겠다.

V

김수영만큼 시정신의 철저한 변모를 보여 준 시인은 드물 것이다. <시인은 영원한 배반자>라고 한 그의 말과 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언어」를 수단으로 시에서의 투철한 실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 실험은 바로<새로움의 모색>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처했어지지 않고 그 시대를 꿈뚜 바로 보며 한 그의 정직성과 진지성에서 나온다. 현실을 깊이 파고 거미한 뿌리, 김현, 민음사, 1974, P, 9

④ 「생활의 극복」 위의 책 P, 142~143

⑤ 「모더니티의 문제」 류리킨의 초상, 김수영, 민음사, 1976, P, 122

⑥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 124~125

⑦ 「새로움의 모색」, 위의 책, P103

⑧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얼개」, 위의 책, P108

⑨ 「일기초(II)」, 위의 책 P25

⑩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126

⑪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T. S. Eliot, Faber and Faber Limited, P18

⑫ 「반려론」, 위의 책 P71

⑬ 「시여, 침을 뱉어라」, 위의 책 P128~129

⑭ 「일기초(II)」, 위의 책 P30

만족할줄 모르는 지성

고통 못느낀 작업

작가든따일 쓰는 내 겉이랑 먹다 버린 쓰글시체가 찾아 헤메는 「하이에나」 항 다끝내 쫘나.

김수영과 나와의 첫 뵐기 시간—연말이다.

20년 동안 시 한 줄 쓰기 위해 고민했다는 발라로메의 「순백의 고통」 숲느끼지 못한 채 한 편의 시, 한 줄의 글이 세김다는 건 취구멍이라도 파야 할 심정이다.

곧 이런의 글이 광인 건<만족할 줄 모르는 지성>을 가지라는 저려이리다. 또<바람>이리다.

발레리에게 불었던 바람. 나에게도 찾어라. 내가 쓰려지도록 불어라. 나도 살아야겠다.

또 하나의 바람을 찾아 가야 겠다. 지난 겨울 거제도 해금강 길에서 산 목조세월.

별리(別離)

▲끊임없는 실추와 파괴의 점철인 생의역정 (歷程) 에서 우리는 또한 만남의 노귀음이 메남의아 픔으로 점단되는 고통의 흔적을 낙인 (烙印) 받게 되기도 하는가 보다. 스쳐 지나는 옷깃에 머문 찰나의 순간에도억겁 (億劫) 을 거슬러 오른 연 (緣) 의 뿌리를 동원하는 인연설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해후와 별리가 그리는 무수한 중심원의 한복판에서서 희비 (喜悲) 의 쌍곡선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파표이동을 할 줄 아는 운명에의 집착과 순응을 배우게 되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희자정리 (會者定離) 라는 단단한 철칙으로 만남과 떠남을 「조치게」로 연결하는 완충제를 마련하는 것이리라.

▲짚은 밑이 나타나기 위해선 어지럽도록 깊은 밑바 밑을 올리는 힘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는 것은 어금 속의 나뭇가지에서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의 육성 (肉聲) 에 응응갈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울며 기쁨스런 자세로 생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조우 (遭遇) 에서 유예 (猶豫) 에 이르는 나락 (奈落) 의 과정을 더 높은단계에서 승화시키는 초월의 철학으로 자신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상 (事象) 은 그로부터 거리를 두어 떠남으로써, 보다 극명해지고 훈훈과 방광의 순치 (馴致) 를 가져 온다는 거시 (巨視) 의 안목을 신념으로 도구화할 줄안다면, 성숙한 자연인에의 도달은 더욱 소망스러울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만남과 떠남의 고리 (環) 는 일마나 많은 것일까. 바람만이 남겨진 역사 (轢史) 에서, 갖 봉분 (封墳) 한흙더미 앞에서, 아쉬움과 포한이 밤벼연기로 잠재워진 조촐한주석 (酒席) 에서 혹은 싸늘히 식은 잣전 앞에서도. 떠남 장소만을 밟리한 별리의 순간들이 지속과도 같은 고통으로 걸려진 채 앞금으로 바탁 깊숙이 침잠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있었던것은 없어지지 않을 밑기로하자. 없어진 것조차도 사람의 마음에 강렬하게 살아남으면, 있는 것보다 훨씬 뚜렷하게 존재함을 밑기로 하자. 소설 속의 인물이 저러다는 하일없는 버스 떠남 그치게 하기에 너무도 절실한 밑음이 아니랜가.

▲종착역에 이르기엔 아직까지 무수히 많은 정거장과 터널을 남겨두고있다. 입술 (嘴脣) 한 고통일망은 긴 여정의 자그마한 정표 (徵表) 라고 해 두기로 하자. 희의든과 결정론적 주수주의 (追隨主義) 가 극복되는 언저리면 어쩌면 단절을 있는 미소가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길>

개교 25주년, 발전을 위한 타진

시리이즈를 마치며 취재기자 방담

그 방안은 무엇인가

종합대학화

—지난 4월21일자 창간기념호의 프롤로그부터 시작한 「종합대학, 그 방안은 무엇인가」 외기획이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게재되었지. 프롤로그그니, 처음 시작해 의 우리 외도와는 멀리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끝을 내야 할것 같아.

—이렇게 이 기획의 출발의 도가 개교25주년을 하나의 계기로 할아 본대학의 발전을 모색해본다는 의미에서 시럽적인 기획으로 시작했었지.

—그래서 기획의 제목을 「종합대학화, 그방안은 무엇인가」로 잡았지만 사실 그동안 비차례에 걸쳐 기사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하는 의혹을 가진 독자들이 많았음을 감안해 불쾌 그 선행조건들을 구체이 이번 기획에 포함시켜 다뤄야했던가 하는 점은 잠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학생, 교수복지문제 연구분위기, 도서관의 이용실태 등은 기왕에도 기획기사로 게재됐 적이 한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종합대학화라는 명제에 적확 (的確) 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종합대학화 방안에 함께 포함시킬으로써 종합대학에 대한 「동구를잡기식」의 논의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 검토가 결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으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

—단지 그 선행조건들을 취재할 때 우리의 취재각도와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어. 물론 취재부터 기사화까지의 과정에서 몇가지 한계도 취재자세를 언이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취재각도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고 반성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이 기획의 제목을 「종합대학화, 그방안은 무엇인가」로 잡았지만 사실 그동안 비차례에 걸쳐 기사화했던 것은 종합대학으로 발전 변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던것도 많았지.

—기획의도상 선행조건으로서의 학생, 교수 복지문제 연구분위기, 여건에 관한 타진등을 이 기획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종합대학을 논의하기 위한 내실을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였지.

—그런데 그 선행조건들을 취재하여, 기사화할 때, 이 기획의 제목과 그 내용들—종합대학화에 관한 기획을 의도했던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학장, 이사장님들의 간접적인 시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말할수 있어.

지난 4월 개교기념식의 기념식에서도 그랬고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전에도 적지않게 종합대학이란 단어를 사용했었지.

—그래서 어느정도의 자료와 근거가 갖춰졌을 것으로 믿고 관련 부처인 기획실등을 부지런히 뛰닥거리며 관계자들을 괴롭혀(?) 왔지만 막상 최소한의 자료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기획이 기자들만의 독주 또는 넋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었어.

—결국 「종합대학」이란 단어의 진원지 (震源地) 발수있는 소위 책임있는 당국에서 함구 (緘口) 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구체안 (具體案) 을 얻어낼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

—그런 의미에서 불행 종합대학이란 어휘는 일종의 상징적 작용에 그친 반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발전방안 「장기발전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란 의미로 대치시켜 놓아야 할것같다.

—그렇지, 지난호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교수, 학생 응답자들은 오늘이나 내일 당장 종합대학이 된다거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욕보다 현재 상태에서의 캠퍼스, 미비점의 발굴등을 통해 장기계획이 수립되 다음 학내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종합대학쪽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욕이 많았어.

「종합대학」 현단계선 「상징적」

관계인사의 빈약한 참여의식, 자료 불충분 아쉬움

획기적 발전 선행 및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

—종합대학화 (昇格) 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학장, 이사장님들의 간접적인 시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말할수 있어.

지난 4월 개교기념식의 기념식에서도 그랬고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전에도 적지않게 종합대학이란 단어를 사용했었지.

—그래서 어느정도의 자료와 근거가 갖춰졌을 것으로 믿고 관련 부처인 기획실등을 부지런히 뛰닥거리며 관계자들을 괴롭혀(?) 왔지만 막상 최소한의 자료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기획이 기자들만의 독주 또는 넋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었어.

—결국 「종합대학」이란 단어의 진원지 (震源地) 발수있는 소위 책임있는 당국에서 함구 (緘口) 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구체안 (具體案) 을 얻어낼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

—그런 의미에서 불행 종합대학이란 어휘는 일종의 상징적 작용에 그친 반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발전방안 「장기발전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란 의미로 대치시켜 놓아야 할것같다.

—그렇지, 지난호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교수, 학생 응답자들은 오늘이나 내일 당장 종합대학이 된다거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욕보다 현재 상태에서의 캠퍼스, 미비점의 발굴등을 통해 장기계획이 수립되 다음 학내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종합대학쪽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욕이 많았어.

—현행 그런 점은 개인적인 견해일 수 없고 전체 대학의 분위기 그것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지, 물론 전통, 연륜등의 요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때지만 전반적으로 실현성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획의 최종 반성을 하는 도중 약간 방향이 빗나갔지만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전기 (前期) 대학으로의 선회 (旋回), 그에 따른 종합대학화등의 획기적 방안이 언젠가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기획의 의도와 부합되는것 같애. 후기 단과대학, 전기 종합대학의 차이가 대학 구성원에 주는 심리적인면에서의 영향이 적을 수 없기든.

—어쨌든 이번 학기 마지막호를 통해 그동안 다뤘던 「종합대학 그 방안은 무엇인가」의 기획을 마무리지으면서 큰 힘겨와 더불어 한가지 의외를 부여해 볼 수 있어.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나의 문제보다 25주년을 맞

1. 프롤로오그
2. 선행조건으로서의 「학생복지」
3. 선행조건으로서의 「연구분위기」
4. 캠퍼스 부지 확장 문제
5. 실현방안과 관심도
6. 취재기자 방담 (연재를 마치며)

제4대 학도호국단을 결산한다

학생활동의 정례적(定例的) 답습 극복 못해

호국단·학생간의 「구조적 융통성」 절실

행사의 편중성, 조직의 경직성등 문제점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제4대 학도호국단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끝이났다. 지난 75년 그 발족을 보아 올해 2학기부터는 5대째를 맞는 학도호국단의 연륜은 어느정도 다져진 셈이다.

그러면 작년 2학기 임명을 받아 약 1년간에 걸쳐 활동해온 4대호국단의 업적과 활동 그리고 실책 (失策) , 미비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국단이 발족당시 비상사태와 관련한 전시 동원체제로서의 학생기구라는 의미를 창단의 취지와 강령으로 한다면, 호국단의 학내에서의 실질적 기능은 학생대표로서의 학생기구라는 의미의 한면, 즉 4월28, 29일의 세계민속예술제, 5월말의 서어울행사지원등 한적한 과제를 수신 끝을수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개교25주년 행사로 거행된 제6회 세계민속예술제는 4대호국단의 거의 모든 행사를 대표할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열려 학내외의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행사중심으로 을 호국단 활동을 살펴볼때 한마디로 평한다면 아주 「무난하게」 임기를 마친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무난하다」는 말에는 호국단 주도행사의 한계를 어느정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 같다.

말하자면 제4대 호국단의 부서를 맡는 최고책임자나 그밑의 학생들이 해마다의 행사를 답습내지 는 반복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자신들 나름대로의 참신하고 의욕적인 새로운 행사를 발굴, 개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미하겠는데 학생활동의 정례적 (定例的) 답습은, 학생활동에 상조력 기여를 별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절약이 1년단위로 되어있어 2학기부터의 예산집행은 전 (前) 호국단에서 짜여진 테로 를 려받아 한정된 범위에서의 활동이라는 점도 있어 더 활기를 불어넣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것으로 보여지나, 특히 4대임기에선 호국단이 세인제행사에 지나칠 정도로 과중한 점을 말한 결과로 풀이되기도 했다.

또한 재작년부터 계속돼온 외대일 정립에 관한 구조조정도 학생활동의 반응이 없었는지 모집공고이후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 「세정신—」대페인이 어느정도 학생사이에 과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앞날의 참고를 위해 지적해 두어야 할것같다.

현재 호국단 부서 간부 일명집차상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개입시킬수 없다는 점이 호국단 부서간부와 일반학생들이 다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일차적요소가 아님가도 생각되는 바가 있다.

현 제도 체계하에서 호국단 (부서간부) 과 학생들이 가능한 최대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길은 부서간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겠다. 즉 많은 학생들을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호국단 예산집행의 혜택이 고루 주어질때 일체감 조성문제는 차츰 해결되어질수있는 요소라고 하겠다.

소위 학생과 호국단사이의 「구조적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때 지난 호국단 부서내의 한팔 간부직을 맡았던 학생이 많은 학생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의외 대상이 되었던 점은 유감된 일로서 중론한 만족의 목소리가 많았던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학기부터 을 1학기에 걸쳐 본대생들이 대외 국제행사(대회) 에 활발히 참여해 많은 호재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학의 일반행사에 대학생들의 참여는 의학에서도 별로 그 예를 볼수 없는 한편 학의행사에 아무런 비판이나 대안 없이 「기능요원」으로참여하여 일어지는 역기능, 부작용, 이미지 실추문제등도 적지않게 노정 (露呈) 되어 학생대표기구인 호국단에서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필요로 지적해 두어야겠다.

<김강민 기자>

외래와의 접목

제도와 인식의 정착을 점검한다

1. 프롤로오그
2. 언어—문체의 혼란과 어투의 변화
3. 경제—소비성향과생존수준의 괴리
4. 사회—근대화와 물량주의의 역기능
5. 정치—전통의식에이식된 상향논리
6. 문화—「장인 (匠人) 」과 「예술가」 「재인」과 「스타」
7. 교육—미국형 스타일의 풍미 (風靡)
8. 이필요오그

정치, 경제구조가 문화형성의 근간(根幹)이 되고있

문화-「장인(匠人)」과「예술가」, 「재인」과「스타」

> 문화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나 각 정치체제에 따른 사회·교육제도의 변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은 「장이」로서 무시되어오던 예술인을 수정된 개념의 예술인으로서의 특수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년전예만해도 불수 있었던 초상화를 그린데 화공들은 하층민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예술활동의 한 잔재라 하겠다.

계화로인한 외세의 침입과 일제하에서의 일부 선각자들의 서구예술도입은 해방과 그 이후 혼란기를 전후하여 불붙이 타지듯이 넘쳐, 체계적 정리단계를 거치지않고 급격히 솟아져 홀이은 외래문화는 문화 예술의 담당자 자체에서도 커다란 혼란을 빚었다.

문화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나 각 정치체계에 따른 사회, 교육제도의 변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은 「장이」로서 무시되어오던 예술인을 수정된 개념의 예술인으로서의 특수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형위자체나 확대형역으로 불렀 일부인예국한되어 민중자는 등멸어진곳에 있었다. 예를들면 이조의경우 도화원과 같은국가주재의 화공양성소나 궁중모방을 위해 존재했던약사의 집합이 고작이었으며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한 호칭 또한 「화공」이나 「악사」, 「광대」로불리운기록으로 보아 당시 예술에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주는 오늘날의 경주화랑 저런처이를 보이고있다.

구한말 개화이후에 공연을하던 남사당패나 십수년의 예술인으로서의 특수한 위치로 격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예술인의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심고 (虛苦) 를 겪고 때이는 서구의 문화와 비교해볼때, 우리 문화계만의 예술철학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작품활동의 기심이 부거, 즉겁게 해주기위해 해보이는 예술에서, 예술자체를 위한 진정한 예술인 단계를 대부분이 건너뛰 채 팔기위한 무책임한 상업예술로 말바꿈한 일면을 요즈음의 문화예술계가 보이고있다는 점에서도 그려하다.

특히 그것은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화랑가나 인기에 편승한 병폭적인 예술표등에서 빚어지는 부조리가 잘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논리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사실자체에 대한 감각적 만족에 그치는 예술작품의, 수요자에게도 적지않은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미구나 TV등의 전파매체나 영상의 발달은 미증의식의 단순화, 즉물 (即物) 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예술풍토는 우뢰 고유의 것은 그것대로, 전적 특수 그동안 이어내려온 기존의 사회관념과 그 구조및 역사성—에 비춰볼때 종래의 예술과 이식된 외래문화간의 괴리는 두드러진다.

결제, 사회의 발전과의균형을 위해 오늘날의 예술은 민중속에 심어지는 예술로 대중화되어야 하며, 「이렇게」라는 방법의 강구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심성을 적절히 카타르시스 시킬수 있는 방법의 조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위축된 예술작인은 일반대중의 예술의식을 말초적으로 타락시키는 요인이 될것임을 감안할때 예술 담당자들과 문화풍토의 책임을 따란할 것이이 넓수 없다.

오늘날 「금」도 「명자」도 아닌 문화 풍토에서 벗어나려면 예술철학의 정립과 예술의식에 대한 새로운인식으로 독창력인 예술창조에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몇불어 한동안 명멸했던 청년문화, 대학문화에 대한 시비도 그것이 구미의 청년문화풍권 재생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대학사회내에서 무엇이 진정마계전위 (前衛) 적인 대학문화상 있는가를 자성 (自省) 해 볼 때도 된것 같다. 대학문화는 일반 문화계의 기층 (基層) 문화인 한에 있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기때문이다.

<신선희 기자>

> 본 시리이즈 「외래와의 접목, 과연가 됐자인가」는 2학기까지 이월의 기획연재를 계속하게 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관심과 의견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과감한 「기행」, 그 이후

○…일부 남 촌산즈들의 과감한 기행 (奇行) 으로 말미암 남녀공용임이 분명한 학생회 1종의 유지실이 점차 금녀구역화하고 있다고.

진상인즉 더위에 지친 남을 무선풍은 소파위에 길게 요박하는 남학생들이 급증했다는 계이데. 유자을 취하려면 한여학생은 꼰 데굔데 「널려 있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에 결단하고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기피인물」로 낙인찍힘이….

○…악린고무 (?) 의 기말고사가 막을 내리자 한동안 들렸던 「밀폭의 장면」이 우루대손처럼 연출돼.

5과의 일곤 (一部) 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주류 (酒類) 와 비주류 (非酒類) 를 다량 비치한 소위 「종파티」를 벌였다고, 게다가 즉석자리로 대량사용된 것은 모조지로 인쇄된 200호 기념호 The Argus였다는것.

또한 무역과에서는 기세도 당당하게 「정문공고판」에 「종파티」 장소를 공시 (公示) 하는 정열을 보이기도 했는데.

쯧쯧, 다를 그 동안은 어떻게 참아지내셨는지….

○…도서관에서는 을들어 세번째로 대출도서의 장기반납 지연자들에게 속히 반납독촉장을 보냈다는 소식.

한계지에 따르면 비출하을 기감인 10일은 물론, 한달이 넘도록 반납하지않는 사례까지 있으며 이번의 대상자는 근 60명에 달한다는데.

명단공개도 앞고, 연체료(10원)까지 저렴하니 마이동풍 (馬耳東風) 이혔다.

○…기말고사가 끝난 며칠 전 학생회관 현관에서 수위아저씨와 학생들이 밀고 밀리는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속출.

수위 아저씨왈 (曰) 『집회금지 명령이 하달돼 있거니와, 4층서어울룸에서는 괴성과 「카드, ××관」 일색인데 어떻게 출입시켜 주겠느냐』 고.

영문을 모르는 촌산즈는 기겁코 장애물을들고 진입 (?) 하겠다는 집념을보여 경쟁한 즐다리기.

수위 아저씨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소. 학생회관에서의 지속적인 「괴성」, 「도박관」이 은 문제인데다가 「집회금지」 규정까지 한층 했으니 원성은 그쪽으로나….

○…무엄고 지루한 여름이 핍거라는 예보를 적중시켜 주는 작금 (昨今) 의 더위 속에 방학을 맞은 이른곱은 바학호로 철시 (撤市) 장면을 연상케 해.

알찬 방학을 작심하면서 사흘이라도 지명해 보려는 안간힘을 쓸는 가운데 45일간의 하면 (夏眠) 에 들입하는태도도 각양각색. 모 학과에서는 「말짝할 만한」 분량의 방학숙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당황과 곤혹의 경지에 몰아넣었다고.

이에한 촌산즈는 곤충채집, 식물채집하던 옛날이 좋았다며 차제에 대학생을 위한 「방학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아무조록 무탈 (無頭) 무해 (無害) 의 방학을 보내시길. Merry summer, happy vacation?

묵하, 하면 (夏眠) 들입

시대속의 인물 (그리스)

시리이즈 ⑦

사랑의 영장화 영화감독 프랑소와 트뤼포

사실주의 반박, 강한 개성 지녀 프랑스 포에틱 리얼리즘 영향받기도

전후(戰後) 영화계에 두각 나타내

F·트뤼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영화계에는 사실상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 판을쳤다. 반전(反戰) 자유 휴머니즘의 장벽한 빛을 띄면서도 많은 예술적인 영화들은 점고 우울한 빛깔의 제시미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영화들은 전쟁이 주고 간 상처와 인간성의 상실에 관한 지마다의 주의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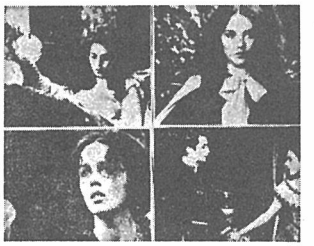
그러나 195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검은 빛깔의 어두운 현실주의는 한쪽 가고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전쟁체험에서 벗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은 외부를 떠나서 점차 내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은 일상성과 구도덕에의 반역이며 시대의식이나 역사의식으로부터의 일탈을 뜻한다. 외부의 현실과의 부담감에 의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형성해왔던 영화는 이제 내적심리의 측량력(測量力) 표현 폭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줄거리 자체나 테마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 되고 정감독수업을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새로운 물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사형대의 엘리베이터><연인들>의 두이 밤, <네번째로 때라>의 장 고다르, <천국사와 내 사랑><지난해 마리앙바드에서>의 알랭 레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랑소와 트뤼포 등이 대표적인 감독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소와 트뤼포는<부부바그>의 제1인자로서 많은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어릿광대는 소년감화원을 트나올었으며<앙드레 바정>이 주관하는<카이에 뒤 시네마>에 신랄한 영화평을 기고하기도 했던 프랑소와 트뤼포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었다. 그의 주요한 작품으로는<피아니스트를 쏴라(Tirezsur le pianiste, 1960)><쥴과 짐(Jules et Jim, 1962)><부드러운 살결(Lapeau douce, 1964)><두 영국 여인과 유럽대륙(Les deux anglases et le continent, 1971)><아델·H양의 사랑이야기(L'his toire d'Adéle Hugo, 1975)>등이 있다. 많은영화가 그렇지만 특에 대한 내적 성찰이다.

동행사에게 육체를 제공한 아내의 벽력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으나 그 사실을 알자 나이트클럽의 피아니스트로 타락, 다시 새로운 여인을 만나지만 그 여인마저 갱에 관련되어 희생당할때 찾아드는 피아니스트의 고독과 허무를 그린<피아니스트를 쏴라>,



<2차대전후연반전(反戰)과 휴머니즘을 주제로한 영화는 차츰 인간의 내면으로 촛점을 옮겨갔다. . .

여인을 찾아 이국 대륙을 헤매다가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마치는 한 가련한 여인을 그린<아델·H양의 사랑이야기>등 그의 대부분 작품의 주조(主調)는 사랑이다.

트뤼포는 자기의 작품에서 사랑에 관한 여러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때로 그것은 지독히 허무감정가 날카로 서슬처럼 서로 어울린다.

이런 모든 학내행사의 보도와 학문연마를 위한 백체토서 의대학보는 매 10일마다 교박교박 학생들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또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1월 1일자로 발간된274호에서 방학무인 7월11일자 285호까지, 모두 11호의 지면을 대한의미다.

개교 25주년을 맞아 기획한 시리즈 「종합대학화, 그 방안은 무엇인가」는 때를 잘 맞은 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본다. 외대의 종합대학화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학교당국이나 학생들만의 것은 아닐듯 싶다. 현대는 국제화 시대이며 외국어가 일상생활화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외대의 발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취발점 되어야 할것이며, 실질적인 면에서도 사회 각계의 호응이 있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외대의 종합화 방안은 단순히 학교발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필연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했을것이다. 동시통역대학실인 새로 개설됐듯도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서 오히려 보였 일간지들이 크게 다루었던것이 이를 증명하고있다 「클인가 명저인가,외대와의 결독」시리즈도. 외대학보의 성격에 맞는 좋은 착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테마는 매 시리즈 보도와 비판에 많은 지면을 보면 내었다. 이 행사는 외대만이 할수있는 특성있는 행사로서 학교의 대외적인 P R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절차 더욱 필요한 때이므로 행사 자체에 대한 지엽적인 비판보다는 이 행사를 통해서 외국 민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도록 학보가 더욱 중점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설적인 기능을 수행했으면 하는 아쉬운도 생긴다. 예를들면 한국 민족음악 외국민속음악 차이와 연관성, 동양과 서양민악의 비교점에 관한 해설기사나 논문 같은것을 싣는것도 한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각 서울의 팔등에도 좋이 눈길을 끌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든다. 서울팔등이 학생지면에 반영되는것은 학생과, 학보가 효율을 살이 할 수있는 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우리나라 대학신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편집의 미숙으로 인한 지면의 미적 불균형과 조잡한 인상이 낯으로 개선 되어야 할 과제일것이다. 구획정리가 잘 되고 발끈한 인상을 주려면 일간신문이 하는 식으로 쓸데없이 많은 동판을 써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심플한 테이아웃으로도 중간제목을 친절하게 달아서 독자들의 부담을덜고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요체를 예리하게 뽑아내어야 할것이다.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이 대학가 한고있는 큰 과제라면 외대학보가 한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이 신문을 주간신문으로 발전 시키는 일일것이다.

<본대학장사·언론인>

「종합대학화 방안」은 시기적절한 기획 돋보여

외대학보의 주간화 시급한 과제

실문명

외대학보 한국기를 보기한다

정 진 석

이문동의 외대 캠퍼스에서는 금년 1학기에도 젊은 지성인들의 드기운 숨결이 넘실거렸다.

전리탑구의 전지한 자세가 도서관을 메웠고, 교문을 들어서면 각 서클들이 써 붙인 매력적인 안내의 말들이 학생들을 유혹했다. 거보적인 행사들 등 금년이 개교 25주년의 해였고, 또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민제가 있는 해였다. 나기되는 각 서클들도 다채로운 모임과 발표회등의 활동을 벌어 이문벌에는 낭만과 전리탑구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런 학기에 가장큰 행사는 역시 세민제였으므로 이에대한 특집기사를 기자들만으로 구성 할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필진으로 동원하여 코멘트를 받아서 좀 더 입체적이고 변화있게 다루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